

장기 요양 기관 임의보험 한시적 허용 순창군, 가뭄 총력 대응

남원시, 재정 투명성 강화

남원시는 장기 요양 기관의 임의보험 운용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과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적 재원으로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재정 운영의 부적절 사례로 보고 정비 지침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장기 요양 기관들은 퇴직금 또는 운영 충당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험 상품을 활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는 퇴직금 적립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행정 조치를 시달렸으나, 남원시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 기간 부족으로 인해 기관에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도 해약에 따른 재정 손실이 곧바로 기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러한 재정 타격은 결국 종사자 처우개선과 재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남원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남원시가 마련한 주요 개선 방안은 우선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장기요양 기관으로 명확하게 변경·지정하고, 원금 보전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어 원금 보전 기간에 도달하면 해지환급금 전액을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 입금하고, 이자와 운용수익 등 추가 지급액은 장기요양기관의 접수입으로 귀속해 기관 운영에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험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손실금은 시설장 개인 자금으로 보전토록 했으며, 아울러 종사자에게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여부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엄정한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해 공적 재원의 누수를 차단하는 동시에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임지남 통합돌봄과장은 "일률적인 처분 대신 공적 재정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현장의 재정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청년정책 방향' 소통 나서

청년협의체 임원들과 간담회

남원시에 따르면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 11일 시장실에서 제3기 남원시 청년협의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종하 청년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해 양승환 부위원장, 4개의 분과장 등 청년협의체 임원 6명이 참석, 청년협의체는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정책 간 연계 필요성을 건의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 11일 시장실에서 제3기 남원시 청년협의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남원시 청년정책은 2026년 시행 계획 기준 17개 부서에서 7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창업·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청년의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장문화 글로벌 앰버서더, 영국서 장류축제 홍보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은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축제 거리와 빅토리아 스트리트 올드타운 일원에서 '순창 장문화 글로벌 앰버서더'와 함께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순창 장류축제와 순창 장문화를 알리는 현지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순창 장류축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순창 고추장과 발효문화를 세계 관광객들에게 직접 소개

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창 장문화 글로벌 앰버서더'는 국내외 여행과 일상 속에서 순창 고추장과 장류축제를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민간 참여형 글로벌 홍보활동이다. 이번에는 선문속 순창발효관광재단 대표가 '제1호 순창 장문화 글로벌 앰버서더'로 참여해 현지 홍보에 나섰다.

선 대표와 글로벌 앰버서더 참가자는 영국 현지에서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에게 순창 장류축제 홍보물과 순창 고추장을 전달하고,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과 순창의 전통 장문화 및 발효문화를 소개했다.

현장에서 순창 고추장을 접한 관광객들은 K-FOOD와 한국의 발효문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순창 장류축제와 순창의 장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현지 홍보활동에 호응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영일 군수, 저수지 저수율·농경지 상황 현장 점검

최영일 순창군수가 13일 오전 가뭄 대책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회의를 마친 즉시 현장으로 나가 저수지와 농경지를 둘러봤다.

이날 회의는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실과소원 부서장과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별 저수지 저수율과 용수 공급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 군수는 "행정이 능동적이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가 바로 재난 상황"이라며 "현재 가뭄의 수준을 감안할 때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군 관리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5%로, 평년 저수율(65%) 대비 83.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읍면별로는 구림면이 71%로 가장 높았고 적성면 70%, 인계면 61%, 금과면 60% 등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북흥면은 30%로 가장 낮았고 유등면 40%, 풍산면 48%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장애인 어울림센터 수어통역사, 소방안전교육 수료

남원소방서에서 따르면 전북 소방교육훈련센터에서 지난 12일 개최된 '제1기 수어통역사 및 특수학교 교직원 소방안전교육'에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황교진 수어통역사가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 상황 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 특히, 수어통역사들은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상주하는 시설이나 현장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보조하고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설된 맞춤형 과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재 발생 원리



와 이해 △식용유 화재의 위험성 및 대처법 △옥내소화전 호스 전개 및 초기 진압 실습 △기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등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치콜 페스티벌' 개최

임실군이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시간 '제3차 청소년 어울림마당·청소년 치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청소년 50여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방학동안 청소년들이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며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소통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문화의집 야외 공간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또래와의 교류 및 친



밀감 형성을 위한 치콜파티를 시작으로 협동심을 기르는 조별 미션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등 참가 청소년들은 맛있는 치킨과 콜라를 나누며 신나는 활동과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KSPO 스포츠가치 교육 캠프' 프로그램 호응

임실군은 최근, KSPO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KSPO 스포츠가치교육 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임실군이 주최하고 KSPO 스포츠가치센터가 주관한 이번 캠프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평소 스포츠 강좌를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 내 유·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했다.

이날 캠프에 참가한 유·청소년들은 전문 시설과 안전한 지도 아래 VR (가상현실)스포츠 체험, 사격, 클라이밍, 트램펄린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체육 종목을 체험하며 스포츠 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11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13개 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호경·호곡·내기·육전·평촌·송내·강석·사석·사매2·대산·부절·서곡·도랑지구 등 총 13개 지구로, 3,838필지, 1,389,172.7㎡ 규모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토지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사통지 이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등을 주요 안전으로 상정, 위원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 경계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사업지구 읍·면·동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되면 새로운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확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